

# 봉준호 신작 '기생충' 칸 뜨겁게 달궜다

21일 칸영화제서 공식 상영 엔딩 이후 7분간 기립박수 봉 감독 눈시울 붉히기도

칸의 단연 화제작 '기생충' 상영 전부터 관객 줄지어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 관객·평론가 호평 일색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21일(현지시간) 오후 10시 '기생충'이 공식 상영된 칸 루미에르 대극장에는 7분간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2300여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상영 후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고 극장 안의 불이 켜지자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작작' 박자를 맞춰 치는 박수도 나왔다. 자리를 뜨는 관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객석의 뜨거운 환호에 눈시울이 붉어진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은 한 겹 손뼉 치면서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박수가 7분 넘게 이어지자 봉 감독은 한국어와 영어로 "감사합니다.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갑시다"(Thank you for everyone. Let's go home.)이라고 말했다. 그의 작별 인사에도 박수는 이어졌다. '기생충'은 칸의 단연 화제작이었다.



레드카펫에 선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 21일(현지시간) 진행된 제 72회 칸영화제에서 경쟁부문 진출작 '기생충'(Parasite) 상영장에 이정은(왼쪽)과 송강호(오른쪽 4번째) 등 남녀 배우들과 봉준호(오른쪽) 감독이 레드카펫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이날 루미에르 극장 주변에는 '기생충' 상영 몇 시간 전부터 티켓을 구하는 관객들이 웃을 한껏 차려입고 '기생충(parasite)'의 초정장을 구한다'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상영 한 시간 전부터는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이 줄을 늘어섰다. 봉 감독과 배우들이 극장 앞 레드카펫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팬들이 큰소리로 환호했다. 이들이 극장에 입장할 때는 관객들이 손뼉을 쳤다. '기생충'은 부유한 가족과 가난한

가족, 이 두 가족을 통해 보편적인 문제인 빈부격차에 대해 논한다. 전원 백수인 기택(송강호 분)네 장남 기우(최우식)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사장(이선균)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사건들에 대해 다룬다. 공생 또는 상생할 수 없이 기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블랙코미디의 방식으로 전달됐다. 관객 반응은 호평 일색이었다. 파리의 영화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한

다는 남성 관객은 "올해 칸영화제에서 '기생충'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봤는데, '기생충'이 훨씬 좋았다"며 "웃긴 동시에 어둡고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가장 한국적인 영화인 동시에 세계적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호응했다"며 "올해 다른 경쟁작이 평작이라 '기생충'이 더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방탄소년단 식지 않는 '글로벌 인기'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5주 연속 진입... 역주행도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5주 연속 진입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는 '빌보드 200' 17위,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핫 100' 6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이 앨범으로 지난 4월 27일자 '빌보드 200' 1위, '핫 100' 8위로 처음 이름을 올린 뒤 5주 연속 메인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동시에 올랐다.

100' 1위, '월드 앨범' 1위, '인디펜던트 앨범' 3위, '톱 앨범 세일즈' 5위, '빌보드 캐나다인 앨범' 19위, '팝송' 24위, '빌보드 캐나다인 핫 100' 30위 등을 차지했다.

또 '소셜 50' 차트에서 통산 127번째, 97주 연속 1위에 오르며 최장기간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8월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結 Answer)는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보다 4계단 상승한 81위를 기록해 2주 연속 차트 '역주행'에 성공했다.

방탄소년단은 스타디움 투어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SPEAK YOURSELF) 미국 공연으로 32만 관객을 동원하며 6회 공연을 마쳤다. 오는 25~2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 현빈·손예진, 이들이 그릴 사랑 이야기

tvN '사랑의 불시착' 주연 북한 장교·재벌 상속녀 역

tvN은 동갑내기 배우 현빈(37)과 손예진이 '별에서 온 그대'로 유명한 박지은 작가의 신작 '사랑의 불시착'(가제)에서 호흡을 맞춘다고 22일 밝혔다.

이 작품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페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특급장교 리정혁(현빈)의 러브스토리다.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등 히트작들을 써낸 박지은 작가가 대본을 맡은 데 이어 '굿 와이프', '라이프 온 마스', '로맨스는 별



현빈 손예진

책부록' 등을 만든 이정호 PD가 연출하게 돼 기대를 모은다. 을 하반기 방영 예정. 연합뉴스



# "홍행배우? 운 좋았지만... 책임감 커졌죠"

배우 김병철 최근 종영 '닥터 프리즈너'로 주연 등극 "주연, 부담감 있지만 연기 폭 넓어지니 계속 하고과"

요즘 잘 된다 싶은 드라마라면 꼭 보이는 얼굴이 있다. 배우 김병철(45·사진)이다. 2003년 영화 '황산벌'로 데뷔한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김은숙 작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에서 송중기의 직속 상관 역으로 출연하면서다. 이후 '도깨비'(2016), '군주'(2017), '미스터 션샤인'(2018), 'SKY 캐슬'(2018), '닥터 프리즈너'(2019) 등에 연이여 출연하며 뒤늦게 찾아온 전성기를 만끽 중이다. 최근 시청률 15.8%를 찍으며 종영

한 KBS 2TV '닥터 프리즈너'에선 이름 그대로 선민의식으로 푹푹 묻힌 교도소 의과과장 선민식 역을 맡아 남궁민(41)과 팽팽한 기싸움 연기를 펼쳤다. 22일 강남구 청담동 카페에서 만난 김병철은 '홍행 배우'라는 평가에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운도 좋았던 것 같다"며 겸손해했다. "안목이랄까보다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대본이 갖는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연기하는 역할이 얼마나 흥미로운지가 기준이 되

는 것 같아요." '닥터 프리즈너' 이전까지는 신스틸러(scene stealer·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주연 이상으로 주목받은 조연)였으나 '닥터 프리즈너'에선 남궁민, 최원영과 함께 '쓰리톱' 주연을 맡았다. 그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부담과 책임감이 생겼다"면서도 "부담감보다는 흥미가 더 크다. 부담감을 잘 해소하고 할 때 내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비쳤다. 그러면서 "연기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연을 하고 싶다"며 연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안전체로 돌아오는 '핑클' 예능 '캠핑클럽' 7월 방송

1998년 5월 1집 '블루레인'으로 데뷔한 핑클은 약 7년간 가요계 정상을 지키다 2005년 마지막 앨범 발매 이후 각자의 길을 걸었다. 활동 당시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서서는 국내 최초로 가요 시상식에서 두 차례나 대상을 받는 등 인기를 얻었다.

사람은 여행을 통해 떨어져 있었던 마음을 나누고, 데뷔 21주년 기념 무대에 설지 결정하게 된다.

1998년 5월 1집 '블루레인'으로 데뷔한 핑클은 약 7년간 가요계 정상을 지키다 2005년 마지막 앨범 발매 이후 각자의 길을 걸었다.

활동 당시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서서는 국내 최초로 가요 시상식에서 두 차례나 대상을 받는 등 인기를 얻었다.

프로그램 연출은 '효리네 민박'의 마진영 PD가 맡는다. 연합뉴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It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오늘의 운세 23일. A daily horoscope section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predictions for the day of May 23rd.